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중소형 선박 종합지원 기지 '위용' 드러내다

군산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서
품질 고도화센터 연구·시험동 준공식
내년 모듈 테스트 시스템 등 추가구축

전북을 중소형 선박 관련 국내 종합 지원 기지로 구축하고, 도내 조선 업계의 활로를 마련할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가 위용을 드러내다.
도는 26일 군산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에서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연구동과 시험동의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신영대 국회의원, 도의회 김철수 농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임준 군산시장, 관련 기관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했다.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 사업은 선박 기자재의 기술 개발과 품질고도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산업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197억원을 투입해 센터 건립 및 핵심 모듈 장비 등 시험 인프라 17종을 구축하게 된다
이번에 준공한 품질고도화 센터는

연면적 2,786㎡로 사업비 53억원을 투입해 2020년 3월에 착공했으며, 연구(2층)·시험동(3층)으로 분리해 구축됐다.
현재 시험평가 및 분석 장비 등 12종을 구축 완료했으며, 2022년까지 모듈 테스트 시스템(Module Test system) 등 5종을 추가로 구축해 연구개발과 시험 인증 사업화로 연결되는 윈스톱 지원 인프라를 조성, 중소형 선박의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우리도 경제 한 축인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과 코로나19로 중점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소형·특수형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어, "품질고도화 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중소형 선박의 연구개발부터 시험인증, 사업화까지 윈스톱으로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기존 업체에 힘이 되는 물론 기업은



26일 군산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에서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 센터 연구동과 시험동의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강임준 군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장비구축 시설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향후 조선산업이 품질고도화 센터를 기점으로 전북의 대표적 산업의 선도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선박의 진수 및 대형구조물 운반 관련 다목적 작업선 건조를 위한 국비 11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친환경·디지털화 수요에 대응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구축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도내 조선산업 부흥을 위한 다

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친환경 연료선박 전환 가속화에 따른 대체연료(LFG, 바이오연료, 암모니아, 수소 등)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를 통해 친환경선박 핵심 기자재 성능 검증을 위한 육상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도, 한국판 뉴딜 등 17개 공모사업 선정

국비 766억원 확보
일자리 창출 등 '탄력'

전북도가 5월 중 국가공모사업에 한국판 뉴딜사업 등 17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766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26일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드론실증도시 구축 등 한국판 뉴딜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농생명바이오 등 전북도 주력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17건의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54건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989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세부 예산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5월 중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공모해 '농생명 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과 '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 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국비 170억원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 구축 공모사업으로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2건의 사업이 선정돼 국비 76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6월에도 2건, 국비 1,600여억원 규모의 공모사업 사상에 나선다. /유호상 기자

상용차산업 위기 극복 노사정 공감대 모색

상용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간 공감대를 모색하고, 산업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전북도 상용차산업 노사정협의회가 26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18일 첫 회의에 이은 두 번째 만남으로, 노동계·경영계·공공부 및 전문가 대표 등이 직접 참여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노동계는 차령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 강영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 사무장 차상운 타타대우상용차 지회장이 경영계에서는 최웅정 타타대우상용차 경영지원실장, 공공부문 및 전문가 대표로는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 최명규 전주부시장 강임준 군산시

전북도 노사정협의회... 정부 도움 필요사항 지원 건의
노동계, 기후위기·산업 전환에 공동 대응 선언 제안
장 박성일 원주군수, 노유식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라기획단장이 참석했다.
"전북도 상용차산업 노사정협의회"는 전북도, 지역 노동계, 경영계가 최근 상용차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따른 상용차 산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도의 상용차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도 상용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유식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라기획단장의 설명과, 차령현 금속노조 지부장의 산



상용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간 공감대를 모색하고, 산업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전북도 상용차산업 노사정협의회'가 2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우범기 정부부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범기 도 정부부지사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급변하는 상용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 친환경 상용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나갈

비전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김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2021.6.3 - 6.6 / 6.11. - 6.13
Muju Film Festival 2021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하고 안전한 무주산골영화제는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